

# 매일 만나

2023.6.



원주중부교회 큐티집

"QT 매일 만나" 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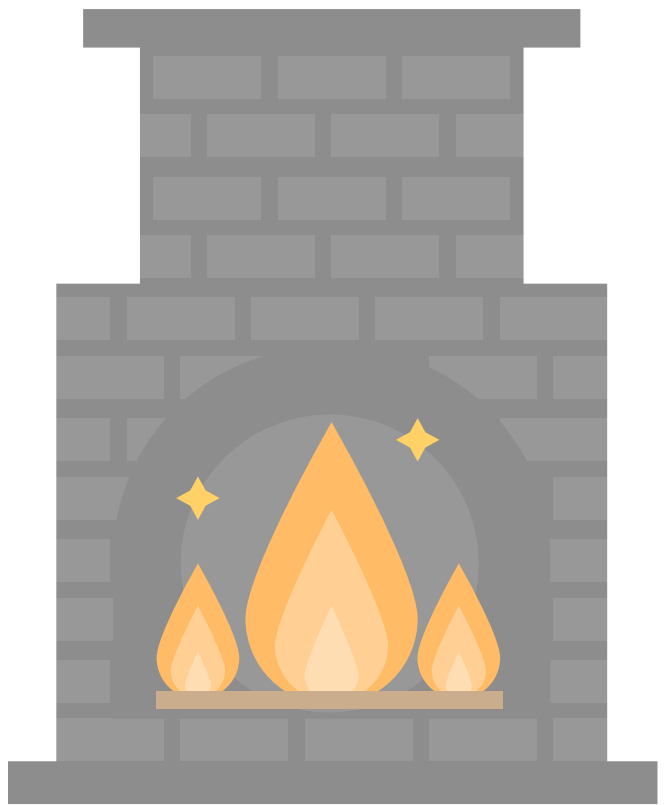
Quiet Time 의 첫글자인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입니다.

**매일 만나**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 늘 동행하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이름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교제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 01

목요일

##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전서 1:1~6

새찬송가 420장

1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2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5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6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말씀 암송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후 12:9)



## 1~6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 가지 시험은 성도의 삶 가운데 외부, 시대와 환경으로부터 받게되는 시련을 의미합니다(약1:2). 하지만, 성도는 이 시험으로 인해, 잠시 동안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도우시며, 환난과 위기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재에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은 '잠시 동안만' 있을 것이며, 그 후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활의 생명,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어려움과 족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놀라운 기쁨이 약속되어 있기에, 무서워 움츠리고, 두려워 떨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승리와 담대함은 성령의 충만함에서 주어집니다.



나에게 가장 두려운 시험은 무엇입니까?



# 02

금요일

## 믿음의 결국

벧전1:7-12

새찬송가 425장

- 7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 8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 9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 10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 11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 12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 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말씀 암송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엡 2:8)



## 7~12절 믿음의 확실함은 ...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실질적인 사실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이 믿음이 성도에게 유익이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성도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소망이 되심입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 성도가 누리지는 못하지만, 약속된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며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또한 이 믿음은 구원의 열쇠입니다. 구원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단순히 영혼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쉬콘'은 히브리적 이해 속에서 '자아'나 '인격' 전체를 의미합니다(2:25; 4:19). 그렇기에 육체적 죽음을 초월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확신할 때는 언제입니까? 성령충만함을 막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 03

토요일

##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벧전1:13-21

새찬송가 428장

- 13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 14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 15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 16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 17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 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 18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 19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 20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 21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말씀 암송**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눅 6:36)



## 13~21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2:9, 5:10). 거룩한 자가 되라는 명령은 구원 받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었고, 주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택하여 복음을 부탁하신 사명자가 성도입니다. 이러한 성도를 향해 거룩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너는 내 앞에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함을 나타내라.' 즉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도 거룩해야 하고, 이 거룩함을 삶 가운데 열매로 맺으며, 나타내어야 합니다. 이렇게 거룩함을 나타내는 성도의 자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품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선한 행실'(2:12), '선한 양심'(3:16), '정결한 행위'(3:2)의 의미로 베드로전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명령)에 순종함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거룩하여 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에 가장 많이 방해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04

주일

##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벧전1:22-2:3

새찬송가 430장

22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3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4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1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3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말씀 암송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벧전 1:24)



## 1:22-2:3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생활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즉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여러 가지 몸쓸 행동과 생각과 죄에서 속죄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것은 썩어질 금이나 은 같이 하찮은 게 아니고 흠 없이 순전한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구속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 근거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거룩하다고 인정받아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을 근거로 신자들끼리 서로 사랑할 것을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된 것은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데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고합니다. 이 사랑은 썩지 않을 씨에서 나서 구원의 기쁨으로 전해지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악한 것을 벗어버리고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악한 것은 무엇인가요?

# 05

월요일

##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벧전2:4-10

새찬송가 433장

- 4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 5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 6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잇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 7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 8 또한 부딪치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 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 10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말씀 암송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벧전2:10)



## 4~10절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는 구약 본문을 선택해 그 사실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인용된 구약 본문은 두 가지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으나 일부 사람들에게 의해 거부된 돌로서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는 예전에 아무런 백성도 아니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신앙 공동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출애굽기 19장 6절을 인용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의 특권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으로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서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긍휼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 06

화요일

##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벧전2:11-18

새찬송가 440장

- 11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 12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 13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 14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 15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 16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 17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 18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말씀 암송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벧전2:11)



## 11-18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가 앞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위상과 특권을 설명하고 개인적인 생활에 권면한 다음에 본론의 다음 부분에서 이방인들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에 권고합니다.

이 단락은 전반부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들이나 권력들 혹은 모든 인간에 순복하라는 명령에 대해, 후반부는 사환들에 대한 주인들에게 순복하라는 명령을 말합니다. 먼저 전반부에서 말하는 순복은 선을 행하는 것으로 표현되며, 이런 순복의 선한 행실은 인간의 제도들이나 통치 권력들의 도움을 통해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악한 자들의 비방을 잠정적으로 잠잠케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선한 행실은 궁극적으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진술이 구체적인 역사적인 정황 가운데서 보다 현실적인 의미로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자신의 수신자들을 자유자들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정치적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이전의 삶의 존재 방식이었던 육체적 본능의 지배에서 자유하게 된 자를 말합니다. 이제 이들에게 육체적 본능에서 해방된 자유를 더 이상 자신의 예전의 삶의 존재 방식인 본능적 삶에 대한 변명에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가운데 종속된 종으로 모든 인간들을 존중하고 왕을 존경하며 무엇보다 자신들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기 위해 해야 할 노력은 무엇입니까?

# 07

수요일

##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벧전2:19-25

새찬송가 446장

19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  
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2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  
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말씀 암송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벧전2:24)



## 19-25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주인들에 대한 순복의 명령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경외'에 의해 한정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인에 대한 순복은 바로 앞서 17절 끝에 말한 바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는 문맥 속에서 이뤄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경외는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적인 헌신 때문에 주인에 대한 사환의 순복에는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고 헌신함으로써 동시에 불의한 인간 제도와 권력들에 대한 말 없는 순응 가운데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물론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은 일차적으로 죄에 대한 우리의 죽음과 의에 대한 우리의 삶을 이루신 구속 역사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질서 속에서 책임성 있는 삶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대한 하나의 모범적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 신원하심에 대한 소망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 08

목요일

## 아내들아, 남편들아

벧전3:1-7

새찬송가 449장

- 1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 2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
- 3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 4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 5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 6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 7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 암송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벧전3:1)



## 1절 순종하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아내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이다.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 무조건 자신의 자유와 존엄을 주장하면서 남편을 거스르면 가정의 평화가 깨질 위험이 있고, 아내의 행실을 보고 불신자 남편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한 것이다.

## 2절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행실'(딤후4:12, 히13:7)은 헬라어로 "아나스트로페스"로 '돌이키다, 돌아서다, 삶의 방향을 바꾸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단순히 하나의 행동이나 행위를 나태기보다는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나 행실, 전반적인 삶의 모습, 삶의 방향이나 전반적인 행실을 의미한다. 본문에서는 반복되고 지속되는 아내의 삶의 태도나 모습을 강조한다. 몇 가지 선한 행동이 아니라 삶의 전반을 통해 남편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 4절 마음에 숨은 사랑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속 사람의 품성을 의미한다. 겉을 아무리 꾸며봐야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속 사람이 온유하고 고요하고 평화롭게 성장하는 것은 남편과의 관계에는 물론, 가정 전체에도 덕을 끼치는 값진 일이다.



부부의 화목과 더 깊은 사랑을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 09

금요일

##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벧전3:8-12

새찬송가 452장

8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10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1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12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 8절 공동체를 위한 교훈

베드로는 공동체를 향해 5가지 교훈을 제시한다. 첫째, 마음을 같이하라. 둘째, 동정하라. 셋째, 형제를 사랑하라. 넷째, 형제를 불쌍히 여기라. 다섯째, 겸손하다. 이 5가지 교훈은 공동체를 지탱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다. 이는 공동체의 하나 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베드로는 '너희가 다' 이렇게 하라고 권면한다.

##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우리의 본능으로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힘들다. 악한 일을 당하면 악한 감정이 북받쳐올라오고 욕설을 들으면 더 심한 욕으로 맞받아치려는 것이 사랑의 본성이다. 그런데 성도는 그 순간에 오히려 축복해야 한다. 이는 통제하기 힘든 정서적 반사 작용을 극복하는 지고한 덕이다. 사탄은 성도가 악에 대해 악으로 반응하도록, 저주를 들은 성도가 더한 저주를 퍼붓도록 한다. 사탄의 이러한 의도를 알고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악을 이기는 것은 더 큰 악이 아니라 선이다. 하나님은 성도가 선으로 이기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본성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를 때 진정으로 승리하고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자주 넘어지는(본성대로, 육하는) 때와 장소를 생각해보고,  
쓰러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봅시다.



# 10

토요일

##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벧전3:13-22

새찬송가 453장

- 13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14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7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18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20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21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22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말씀 암송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벧전3:15)



## 15절 소망에 관한 이유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다. 초대교회 당시 웬만한 영적 동기가 없으면 신앙을 지킬 수 없는 핍박의 시대였다.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은 당시 성도의 영적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었다. 또한 성도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었다.

## 19절 옥에 있는 영들

'옥'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스올'(헬, 하데스), 즉 죽은 자들의 거처를 가리킨다. 그곳에 갇혀 있는 영들은 불순종해 하나님의 진노를 산 사람들의 영이다.



고난 당함에도 복음을 전했던 경험이 있나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 11

주일

##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벧전4:1-6

새찬송가 86장

- 1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 2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 3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 4 이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달음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 5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 6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 암송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벧전4:1a)



## 1절 갑옷

갑옷은 칼이나 창 같은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수비용 무기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마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영적 무기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한다.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환난을 대비하라는 것이다.

'갑옷을 삼으라'라는 말은 단지 방어만을 위한 소극적인 명령이지만, 본문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무기로 삼아 살라는 적극적인 명령이다.

## 4절 극한 방탕

'방탕'만으로도 큰 죄인데 여기에 '극한'이 첨가되었다. 이방인들은 온갖 쾌락에 탐닉하고 방탕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통해 구원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3절). 이는 세상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며 자기 절제를 포기한 채 방종한 생활을 이어가는 이방인들의 생생한 현 주소를 가리키는 말이다.



육체의 고난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 12

월요일

##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벧전4:7-11

새찬송가 85장

- 7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 8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 9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 10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 11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씀 암송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벧전4:7)



## 본문설명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때임을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할 때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고 두 천사로부터 "하늘로 올리워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증언을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행1:11) 따라서 마지막 때에 성도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입니다. 성도들은 일상에서 서로를 대접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으로 인해 다른 성도들을 섬겨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세 번째 권면은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서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청지기처럼 집을 관리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은사의 목적은 개인의 이익이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각사람들은 고유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를 다른 지체들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큐티를 통해서 적용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 13

화요일

##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벧전4:12-19

새찬송가 199장

- 12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 13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 14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 1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 16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 17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 18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 19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말씀 암송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벧전 4:12-13)



## 본문설명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불시험은 로마제국 시대에 초대교회성도들이 당한 박해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순교자들이 말뚝에 결박당한 채 화형을 당하였고, 성도들의 몸을 횃불 삼아 네로 황제의 정원을 밝히기도 했다는 이야기로 미루어볼 때 불시험이란 말은 성도들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같은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불이 금속을 단련하듯 하나님께서 불같은 고난을 통해 성도들을 연단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이 고난으로 인해 즐거워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불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성도의 고난의 정도는 영광의 정도가 될 것이며, 따라서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즐거워하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고난의 종류들을 나열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고난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고난을 구분합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은 현행법을 어긴 죄입니다. 이런 고난은 마땅한 것이며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란 남의 일에 끼어들어 말을 부풀려 전달함으로써 공동체의 화합을 깨뜨리는 자입니다. 이런 고난 또한 부끄러워할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은 부끄러워할 고난이 아니라 복된 고난입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이런 고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는 그리스도(Christ)와 사람(ian)이 합친 단어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또는 닮아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행 11:26; 행 26:28).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은 복된 고난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난입니다.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은 어떤 종류의 고난입니까?



# 14

수요일

##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벧전5:1-6

새찬송가 200장

- 1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 2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 원함으  
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 3 말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 4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 5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 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 6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 암송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벧전 5:6)



## 본문설명

장로들은 교회의 최고 어른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이들에게 양무리들을 부탁했습니다. 초대 교회의 장로들은 교회를 치리하는 권위를 가진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책임 있는 지도자로 공식적으로 세움을 받은 분들을 장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함께 장로된 자라고 겸손히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요, 최고 연장자라고 해서 일반 장로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했습니다. 장로 중에는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치리 장로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를 가리키고 이를 감독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치리하는 장로는 교회를 감독하고 봉사하는 장로입니다.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최고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임무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 때 양무리를 칠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어 다른 양들을 섬겨야 합니다.



나는 양무리의 본이 되어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기고 있습니까?

# 15

목요일

##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시64:1-10

새찬송가 205장

- 1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 2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 3 그들이 칼 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 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 4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 5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 6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 뜻과 마음이 깊도다
- 7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 8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 9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 10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말씀 암송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시64:10)



## 본문설명

다윗에게는 언제나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일행은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을 변호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날카로운 말로 독설을 내뱉습니다. 또한 그들은 서로 격려하며 은밀한 일을 꾸밉니다. 그들은 아무도 자기들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활을 쏘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독설을 보시고 반드시 응하게 하십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에 상하게 되고 엎드려질 것입니다. 이때 의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결국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나는 악인들의 즐거운 무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습니까?

# 16

금요일

## 주의 뜰에 살게하신 사람은

시65:1-13

새찬송가 208장

- 1 하나님이며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 2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 3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 4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 5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 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 6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 7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 8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 하게 하시며
- 9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 10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 11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 12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 13 초장은 양 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 이다

말씀 암송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65:4)



## 본문설명

다윗의 시로 장막절에 불렀던 '감사 예배시'로 집으로 추수를 가져오는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주권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성소 시온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갈망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 17

토요일

##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이다

시66:1-20

새찬송가 211장

- 1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 2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 3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 4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 5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 6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 7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 8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 9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 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 10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 11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매어 두셨으며
- 12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 13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 14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 15 내가 숫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 16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 17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 18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 19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이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 20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말씀 암송**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시66:8)



## 본문설명

저자가 저작배경에 대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선민 전체의 구원에 대한 간증과 개인의 구원에 대한 간증이 나온다는 점에서 민족의 대표 리더인 이스라엘 왕 중 한명(다윗, 히스기야 등..)중에 지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야43장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동시대를 살았던 히스기야로 추정하며 이를 토대로 보았을 때 앗수르의 침략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경험했던 히스기야의 찬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절기나 안식일 예배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도우심에 감격하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 18

주일

##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시67:1-7

새찬송가 214장

- 1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 2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 3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 4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 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 5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 6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 7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말씀 암송**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시67:7)



## 본문설명

저자와 저작배경이 알려져있지 않으며 장막절 기간 중에 '추수 감사 찬송'으로 불려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역사와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 확장되기를 구하면서 풍성한 소산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소산은 단순히 물질적인 땅의 소산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영적 결실에 관점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확장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 19

월요일

##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68:1-35

새찬송가 218장

- 1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 2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 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 3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 4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 5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 6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 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 7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 8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 9 하나님이여 주께서 흠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 10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 11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 12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 13 너희가 양 우리에게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 14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흠으실 때에는 살문에 눈이 날림 같도다
- 15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 16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 17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이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 18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 19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 20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 21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 22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 23 네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네 발을 잠그게 하며 네 집의 개의 혀로 네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 24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 25 소고 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 26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 27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나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 28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 29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 30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흠으셨도다
- 31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 32 땅의 왕국들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 33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 34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 35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말씀 암송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시68:26)



## 본문설명

본 시는 저자가 다윗이며 지취자인 영장의 인도로 연주된 제의 음악이라는 사실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성소에 행차하시는 하나님의 대한 찬양이 담겨있는 점(24-28절)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추측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던 회고가 기록(7-18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과 전쟁을 배경으로(삼하10장)하고 있다는 견해가 지지를 받습니다.

본 시는 배경과는 별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승되던 역사적 사실을 여러가지를 엮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도 회고, 찬양, 감사, 구원의 호소, 저주 등 거의 모든 종류의 표현들이 사용되어 난해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공통된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록들이라는 점입니다. 즉,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회고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승리에 대한 확신과 이에 대한 찬양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가운데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까?

# 20

화요일

##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시69:1-36

새찬송가 220장

- 1 하나님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 2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 3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 4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 주게 되었나이다
- 5 하나님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 6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 7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 8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 9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 10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 11 내가 굶은 베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 12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 13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 14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 15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 16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 17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 18 내 영혼에게 가까이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 19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 20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총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 21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 22 그들의 밥상이 울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덧이 되게 하소서
- 23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 24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 25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 26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 27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시라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 28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 29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 30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 31 이것이 소 곧 불과 굶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 32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 33 여호와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 34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 35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 36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말씀 암송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느 9:31)



## 주의 많은 긍휼

14-16절을 보면 다윗이 본시를 쓸 당시의 상황은 그 자신도 자각하고 있듯이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져볼 만한 어떤 외적 조건도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분명 절망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희망을 잃지 않을 분명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16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많은 긍휼'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언약 백성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인자'와 더불어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속성으로 자기 백성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은 자기 백성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결코 간과할 수 없게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곧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긍휼에 풍성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해도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긍휼'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혹하고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며,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많은 긍휼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많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을 진심으로 의뢰하는 사람에게서 결단코 은혜의 손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 21

수요일

##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70:1-5

새찬송가 251장

- 1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 2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안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 3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 4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 5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말씀 암송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사 12:2)



## 위기 극복의 비결

본 시는 시인 다윗이 현재 처한 위기 상황이 잘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핍박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깊은 공감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암울한 현실에서도 다윗이 절망하지 않고 과거 하나님께서 베푸신 감격적인 구원 사건을 회상하며 현재의 위기로부터의 구원을 호소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위기 극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본시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찬양과 찬양의 서원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확신과 기쁨을 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의 삶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임과 동시에 성도들이 어려움에 직면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며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까?



# 22

목요일

##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시71:1-24

새찬송가 254장

- 1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 2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 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 3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 4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 5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 6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 7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 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 8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 9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 10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 11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나
- 12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 13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 14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 15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 16 내가 주 여호와와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 17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 18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 19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 20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 21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 22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 23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 24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안을 당함이니이다

말씀 암송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 6:18)



##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시인은 자신이 늙은 지금에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자신을 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을 계속해서 후대에까지 전하게 하여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시인은 늙어 자신을 버리지 말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이 간구는 대적들의 말대로 하나님이 늙은 시인을 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인이 이와 같이 간구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을 뿐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당한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의 대적들은 하나님이 시인을 버리셨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이에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끝까지 버리지 마실 것을 간구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의 완성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버림받은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반드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곤경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라고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고 할 것이지만 여러분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짐으로 늘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버림 받은 것 같았던 순간이 있습니까?

# 23

금요일

##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시72:1-20

새찬송가 272장

- 1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 2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 3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 4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 5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 6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 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내리리니
- 7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 8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 9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굶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 10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 11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 12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 13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 14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 15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 16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 같이 왕성하리로다
- 17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 18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 19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 20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말씀 암송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 진정한 복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보다 우리에게 귀한 일은 없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다고 해도 그것은 지극히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영생이 없는 세상의 부귀 영화는 거짓 복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세우신 왕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고 그의 통치를 받기만 하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영생의 복은 이 세상의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함께 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생의 복을 필사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굴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정녕 여러분은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영생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지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 24

토요일

##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시73:1-28

새찬송가 273장

- 1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 2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 3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으로다
- 4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 5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 6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 7 살핌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 8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 9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 10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 11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 12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 13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 14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 15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 16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 17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 18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 19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 20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 21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찢렸나이다
- 22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 23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 24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 25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 26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 27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 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 28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말씀 암송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 41:10)



##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므로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상황은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큰 시험에 들었지만 실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합니다.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서도 발견되어야 합니다. 나의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힘과 능력임을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자신을 세밀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으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귀한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힘과 능력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 25

주일

##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시74:1-23

새찬송가 278장

- 1 하나님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 2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 산도 생각하소서
- 3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 4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 5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 6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 7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엮었나이다
- 8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 9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인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 10 하나님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 11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 12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 13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 14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 15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 16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 17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 18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 19 주의 멧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 20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 21 학대 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 22 하나님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 23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말씀 암송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시 106:45-46)



## 성도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호소해야 합니다.

18-23절은 선민의 회복을 위하여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간구를 위해 13-17절에서 과거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언약을 돌아보소서라고 탄원합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선민의 회복을 위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모든 언약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내용은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여서 창대케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었고 백성들마저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마치 언약이 파기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돌아 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은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 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를 하였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언약을 기억하여 달라고 호소 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로 불쌍히 여겨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우리 또한 언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무시하고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믿고 신뢰 하고 있습니까?

그 언약의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 26

월요일

## 이름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시75:1-10

새찬송가 284장

- 1 하나님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 2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 3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 4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 5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 6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 7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 8 여호와와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 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 9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 10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말씀 암송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어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누가복음 19:17)



##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현재의 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7절을 보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고 고백합니다. 인생의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낮추시고 어떤 사람은 높이신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자 능력있는 자나 능력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차별하신다면 오직 믿음의 유무에 따라 차별하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면 목동을 왕으로 삼으실 수 있고 현재 지극히 높은 왕이라도 낮추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떠한 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삶의 상황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실패감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으며 온유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교만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의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 27

화요일

##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시76:1-12

새찬송가 287장

- 1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 2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음이여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 3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하셨도다 (셀라)
- 4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 5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 6 야곱의 하나님이며 주께서 꾸짖으시매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 7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 8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 9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도다 (셀라)
- 10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 11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 12 그가 고관들의 기를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말씀 암송

만군의 여호와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말라기 4:1)



## 성도는 마지막 날에 있을 긍휼 없는 심판을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7절을 보면 시인은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라고 반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마땅히 두려워 할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노를 발하시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앞에서 온전치 못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앗수를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무려 18만 5천명이 송장으로 죽은 사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긍휼 없는 심판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하여 오래 참고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면 결국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드실 수 밖에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향하여 있을 때 긍휼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이 이르기 전에 오직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악을 미워하며 선한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며 최후 승리를 얻는 귀한 삶을 살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 28

수요일

##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시77:1-20

새찬송가 292장

- 1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 이시리로다
- 2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 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 3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 4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 5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 6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 7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실까,
- 8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 9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 나이다 (셀라)
- 10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 11 곧 여호와와 그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 12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 13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 14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 15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 16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 17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 18 회오리바람 중에 주의 우렛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 다
- 19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 20 주의 백성을 양 떼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말씀 암송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엡 3:13)



##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일을 회상하는 것은, 그 회상을 통해 연약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현재 극심한 환난 가운데 처한 자기 자신도 버리지 아니하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회복하기 원했습니다. 시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고난을 허용하기도 하십니다. 징계를 위할 수도, 연단을 위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난 날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기억하는 것은 신앙에 큰 유익이 됩니다.



은혜와 사랑을 강렬하게 경험한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기억하며 믿음을 다시 회복하여 봅시다.

# 29

목요일

## 숨기지 아니하고 후대에 전하리로다

시78:1-72

새찬송가 303장

- 1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 2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 3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 4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 5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 6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 7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 8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 9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 10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 11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 12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니
- 13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 14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 15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 16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 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 17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 18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 19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 20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 21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 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 올랐으니
- 22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 23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 24 그들에게 만나를 비 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 25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 26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 27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 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 같이 내리셨도다
- 28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 29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 30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말씀 암송

너는 그 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출 13:8)

31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역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  
 셧도다  
 32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33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34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35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36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37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38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시므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  
 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 내지 아니하셨으니  
 39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40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41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42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  
 다  
 43 그 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안 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44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45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46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47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병나무를 2)서리로 죽이셨으며  
 48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 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49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50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  
 셧으며  
 51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52 그가 자기 백성은 양 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 떼 같이 지도하셨도다  
 53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54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55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  
 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56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57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 같이 빛나가서  
 58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59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60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61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 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62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63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64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65 그 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66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67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68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며  
 69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도다  
 70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71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  
 니  
 72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후대에 열심히 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후대에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역사를 시인은 후대에 전한다고 합니다. 시인 이전부터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조상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듣고 본 하나님의 역사를 전했기에 신앙이 이어졌고,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에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열심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나라를 지키시고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는다면 의무를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신앙의 계승과 확장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 또는 오늘 만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놀라운 계획을 나누어 봅시다.

# 30

금요일

##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시79:1-13

새찬송가 309장

- 1 하나님이며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 2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 3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 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 4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 5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 6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 7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 8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 9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며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 10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 주소서
- 11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 12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칠 배나 갚으소서
- 13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말씀 암송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대하 7:14)



## 하나님은 성도의 회개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갇힌 자의 탄식'이란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깊은 탄식의 소리를 의미합니다. 고난과 고통에서 비롯된 탄식입니다. 이 탄식은 회개라고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즉 시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갇힌 자의 탄식에 응답하십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는 역으로 진정한 회개가 동반되지 않은 구원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마치 갇힌 자와 같이 되었을 때는 먼저 회개부터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개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해야 합니다.



회개를 우선 실천하며 기도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원주중부교회 새벽 QT

## 매일 만나

2023. 6

**발행인** | 김미열

**도운이** | 한성훈 최청환  
| 안광모 박예일  
김요한 송주원  
손아론 신동재  
김충만

**발행처** | 원주중부교회

T : 033-744-2760 ~1,2

F : 033-744-2763

<http://wjjungbu.org>